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0.06(금) ~ 2023.10.12(목)

제공일시 2023 10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0.06(금) ~ 2023.10.12(목)

제공일시 2023 10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캘리포니아 주지사, 기후공개법안 서명.. 일정과 비용 연기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기후공개 법안에 서명함
- SB253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매출 10억달러 이상 기업은 스코프3까지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며, 제3자 검증을 받도록 요구
- 주지사는 다만, 2026~2027년부터의 이행기간 실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재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일정과 비용 문제로 시점을 연기할 뜻을 밝힘

(ESG투데이, 2023.10.09) Mark Segal 기자

2. EU, 재생에너지 점유율 2배 확대, 항공 탈탄소화 법안 채택

- EU 이사회가 재생에너지 점유율 2배 확대 지침과 항공 탈탄소화 법안을 채택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2배 확대 법안은 EU의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42.5%(2030년까지)를 차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으로, EU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치인 45%를 공동 달성하도록 의무화함
- 항공 탈탄소화 법안인 'ReFuel EU 항공법'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의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SAF의 점유율을 2050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ESG투데이, 2023.10.09) Mark Segal 기자

3. EU, 중국산 풍력 터빈의 보조금 지원 조사 착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풍력발전 터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유럽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전기 자동차(EV)에 대해 유사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역 산업 보호 정책을 명확히 실시하기로 함

(글로벌 이코노믹 2023.10.07) 성일만 기자

(이로넷 2023.10.06) 김재승 기자

4. 유럽연합, 세계 최초로 녹색채권 표준 승인

- 지난 4일(현지시각)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자발적 기준을 승인함
- ESG 투자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그린워싱 및 오해의 소지를 주는 기후친화적 주장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
-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채권 수익의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규정에 따르면,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85%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택소노미(Taxonomy, 과세체계)'에 부합하는 활동에 쓰여야 함
- 유럽 집행위원회 재무국장 메어리드 맥기네스는 이번 유럽 녹색채권 표준은 자발적이라며, 시장에서 표준이 널리 사용돼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해야 한다고 언급함

(인팩트온 2023.10.10) 이재영 기자

1. “석탄발전 폐쇄 손실 최소화”... 출구전략으로 ‘원전 전환’ 부상

- 2036년까지 ‘퇴출’될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 발전 28기의 좌초자산이 4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 손실은 최소화하고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출구전략’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이번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만큼, 석탄발전 부지와 시설을 원전으로 전환하는 방안(C2N·Coal to Nuclear)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문화일보 2023.10.10) 박수진 기자

(문화일보 2023.10.10) 김지현 기자

(문화일보 2023.10.10) 박수진 기자

2. '포스코 등 탄소중립 돕는 '수소환원제철' 정부 지원, 선진국의 10% 그쳐'

- 포스코가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확보에 나선 '수소환원제철' 관련, 정부 지원이 선진국에 훨씬 못 미쳐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예산액의 불과 3.4%만 반영했다"며 이처럼 주장함

(매일신문 2023.10.10) 홍준현 기자

3. 전기차충전소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차충전소가 활성화될 전망
- 노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기차충전소에서 태양광 · 풍력 ·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됨

(국토일보 2023.10.10) 조성구 기자

1. 재생에너지 투자한다더니...엑손, 세일업체 80조원대 인수 추진

- 미국 최대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이 원유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00억 달러(약 81조 원)짜리 초대형 인수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됨
-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엑손모빌과 미국 세일오일 시추업체 파이어나어 내추럴 리소시스의 인수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도
- 조만간 양측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지만, 막판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 엑손모빌이 파이어나어 내추럴 리소시스 인수에 성공할 경우, 미국 내에서 독보적인 원유 생산자로서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임
- 다만, 일각에서는 세일업체 인수를 위해 거액을 투입하겠다는 엑손모빌의 결정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화하자는 세계적인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됨

(연합뉴스 2023.10.07) 고일환 기자

2. 이젠 비행기도 친환경 시대...전기 해상글라이더 스타트업 리젠트, “내년 비행 시작”

- 미국 동북부 로드아일랜드의 전기 시글라이더 스타트업 ‘리젠트’가 내년부터 유인 비행을 시작함
- 시글라이더는 바다 위를 날아서 이동하는 비행체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도시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리젠트는 시험비행을 마친 뒤 2025년부터 상업 운항에 나설 계획

(한국경제 2023.10.09) 최진석 기자

3. 롤스로이스, 수소 연소로 최대 이륙 엔진 추력 기술 실증

- 롤스로이스가 100% 수소로 동작하는 ‘펄700’ 엔진에서 연료가 최대 이륙 엔진 추력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연소됨을 테스트 결과 확인했다고 전함
- 이는 항공연료로 친환경 수소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성과
- 8일 롤스로이스에 따르면, 독일 쾰른에 위치한 DLR에서 진행된 펄700 엔진의 완전 환형 연소기 테스트에서 최대 이륙 엔진 추력으로 수소연료가 연소됨을 입증함

(IT비즈니스 2023.10.08) 오현석 기자

4. FT "대만 화학업계, TSMC 따라 유럽 차세대 공장 공략"

- 대만반도체(TSMC)에 이어, TSMC에 화학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속속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함
- 유럽연합(EU) 공급망 위축으로 아시아 화학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설명
- FT는 TSMC에 세정제와 용해액을 공급하는 LCY그룹의 빈센트 리우 최고경영자(CEO)와 인터뷰 기사를 신고 "대만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유럽의 차세대 공장을 공략한다"고 전함
- 보도에 따르면 TSMC에 화학 용품을 공급하는 다른 3개의 대만 업체도 유럽에 대한 투자를 고려 중
- 대만 기업들의 유럽 투자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FT는 논평함

(뉴스1 2023.10.11) 신기림 기자

1. 삼전·현대차 등 'CF연합' 가입...RE100에서 원전 포함 CFE로

-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무탄소에너지(CFE)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 공급을 충족해야 하는 RE100보다 부담이 적은 만큼, 주요 대기업들이 방향을 선회함
- 8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대한상공회의소 주재로 무탄소에너지연합(CFA) 법인이 설립됨
- 무탄소에너지연합(CFA)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기관은 지난 5일 기준 총 20곳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한화솔루션, GS에너지, 고려아연, 두산에너지빌리티, LS일렉트릭, 한화임팩트, 여천NCC 등이 가입할 예정
-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고려아연 등은 이미 RE100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무탄소에너지연합(CFA)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에너지 경영 방향을 튼 것
- 무탄소에너지(CFE)는 재생에너지로만 달성해야 하는 RE100과 비교해 부담이 적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뉴스스 2023.10.08) 손차민 기자
(아시아타임즈 2023.10.09) 정인혁 기자

2. 현대차·기아, 내년 4분기부터 북미시장서 테슬라 충전방식 채택

-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가 북미 시장의 대세가 됨
- 미국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현대차·기아도 결국 해당 규격을 받아들일기로 함
- 5일(현지시간) 현대차 북미법인(HMNA) 등에 따르면, 2024년 4분기부터 미국서 판매하는 현대차·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는 NACS 규격의 충전포트가 장착됨
-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전기차는 테슬라 충전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
-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구형 전기차 소유주에게도 복합 충전 시스템 포트를 갖춘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
- 현지 언론들은 그간 현대차그룹은 테슬라 충전방식 도입에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북미서 전기차 판매에 탄력을 받으며 '견제'보단 대세에 편승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데일리한국 2023.10.06) 안효문 기자

3. LGD·LG화학, 전량 수입해온 OLED 핵심소재 국산화 성공

-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함
-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은 해외업체가 독점해온 OLED 핵심 소재 'p도판트(dopant)'를 양사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9일 밝힘
-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은 10여년간 p도판트 국산화를 목표로 공동 연구한 끝에, 독자 기술로 기존 수입 재료와 동등한 효율과 성능을 갖춘 소재 개발에 성공

(연합뉴스 2023.10.09) 김아람 기자

4. GC녹십자·SK E&S, 태양광 6.7MW 규모 PPA 체결

- GC녹십자가 SK E&S와 지난 5일 충북 오창공장서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이하 PPA)'을 체결함
- GC녹십자는 SK E&S와 계약을 통해, 총 6.7MW의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간 공급받겠다고 밝힘
- 이번 PPA는 국내 제약 업계 최초. 생산 전력은 오창공장, 음성공장, 화순공장 등 총 3개의 사업장에 2026년부터 공급될 예정

(한국경제 2023.10.06) 김예나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0.06(금) ~ 2023.10.12(목)

제공일시 2023.10.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ESRS 대응 어떻게 하나...유럽 현직자들의 생각은?

(인팩트온 2023.10.06) 송선우 기자

- 지난 8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공시규제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이 중대성평가를 통해 정보공시범위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ESRS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ESG교육전문업체 빈치 워크스(VinciWorks)가 글로벌기업 ESG담당자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77%의 응답자가 “ESRS 기준에 부합해 정보공시를 할 준비가 안됐다”고 답함
- 익명을 요구한 영국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영국의 TCFD공시 의무화 사례를 보면, 이해관계자들은 공시 의무화의 첫해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좋은 공시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기까지 3년가량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타 기업 보고서, 컨설팅 기관,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ESRS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ESRS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중 중대성 평가임. 이중 중대성 평가란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사회적 요인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모두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지난 8월 발표된 개정안에서 기업의 중대성 평가에 기반해 공시항목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중대성 평가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짐
-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중 중대성평가를 통한 정보 선택의 범위임. 중대성 평가를 통해 정보 선택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할 경우, 사실상 ESRS내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중대성 평가에도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반대로 정보 선택의 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기업에 내재된 ESG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차후에 곤욕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KPMG스웨덴의 지속가능성 인증팀 총괄이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사무국에 소속된 크리스토퍼 라슨(Christopher Larsson)은 “중대성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속가능성 분야가 중대 이슈에 포함된다”며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관계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어떠한 지속가능성 정보가 자사에 연관이 있을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반면 빅데이터 기반 ESG분석업체 데이터마란(Datamaran)의 혁신팀 총괄 도나토 칼라스(Donato Calace)는 “적절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중대 이슈 선정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실제, 유럽 내 많은 기업들이 포괄적인 기준보다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라며 “기업의 ESG리스크와 기회에 입각해 정보 선택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논리구조를 수립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정보 선택의 범위를 넓히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힘